

건축, 변화를 이끌어야 산다

Architecture industry have to lead change to survive

조총기 | 편집인 겸 편집국장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전야인가,
아니면 길을 잃고 자포자기 하는 마지막 밤인가?”

건축사, 건축사협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해야...

2013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건축계는 건축을 떠들었다.

건축이 없기 때문이다. 건축이 없기 때문에 건축을 갈망하는 것이다. 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가난한 사람이 돈의 힘을 안다. 좋은 건축이 있었다면 우리는 실망과 허탈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화, 정보화가 된 이 시대의 두 가지 특징은 ‘불확실의 증대’와 ‘불안의 확산’이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불확신하고 모두가 불안하다. 이는 문화라는 메커니즘을 구현하여야 하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건축사협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땅에 건축이 어떻게 성장했나? 이 땅의 건축사들과 협회의 공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제성장의 저변에서 건축사법과 건축법 등, 제도에 의지하여 살아왔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요즘은 건축사자격증이 먹고사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지만, 1970 ~ 198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건축사면허만 있으면 최소한 먹고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 실체를 금방 알 수 있다.

지금의 나홀로사무소, 소규모사무소, 중규모사무소, 대규모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소속된 건축사들은 각기 다른 불안 속에 살고 있다. 그런 불안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사회, 경제적 구조와 관련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안은 나홀로사무소부터 중, 대규모사무소가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그러나 나홀로사무소, 소규모 사무소, 중규모사무소, 대규모사무소가 공통의 경험, 공통의 취향 그리고 공통의 이해관계로 뭉칠 수 있을까? 더구나 나홀로, 소, 중, 대의 규모를 꿰뚫는 공통의 이해관계라는 게 있을지도 의문이다. 나이별, 지역별, 업무성격별로 말이다.

건축은 소통을 이야기한다. 좋은 사회, 아름다운 도시는 모든 건축사들이 자부하는 실체이다. 정말로 건축사들이 국가의 건축과 도시를 대변하려면 현재의 건축을 외면하고 오로지 기술적 계량 중심의 ‘친환경건축정책’이나 ‘뉴타운건설’ 및 ‘4대강사업’에 대해서 엄정한 비판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 건축사들에게는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다. 그 열망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열망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지 지금의 협회장과 집행부 그리고 건축지식인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그 대답이 제대로 나올 때, 비로소 지금 이 시기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하니 건축사협회가 해야 할 일은 건축사들이나 후학들의 불안을 해소할 ‘시스템의 전환’ 즉 법과 제도를 통한 불안의 확산을 막고 예측 가능한 시대를 여는 것이다.

지금 협회장이 되려고 하는 자는
건축의 미래를 위해 어떤 협회장을 말하고 있는지 그런 비전을 보여야 한다.
꿈을 주지 못하는 협회장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협회장의 크기가 협회의 크기이다.

좋은 정책이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꿈과 희망을 주는 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협회장과 같은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은 '정치력'이다. '경영' 혹은 '행정'이 아닌 행정부나 국회를 설득하는 능력 말이다. 정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열정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CEO식의 협회장이 나오면 꼭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치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 자기 뜻대로 안되면 권위만 부릴 수 있다. 협회장은 항상 선한 의도뿐만이 아니라 선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한다. 때로는 선한 결과를 위해서는 정말로 '악마적 힘'과도 관계를 맺을 자신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협회장은 강한 사람이 해야 한다. 좋은 사람도 아닌, 합리적인 사람도 아닌 합목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지도자만이 협회장이 될 수 있다.

협회장이 가져야 할 자질은 크게 네 가지이다.

'결단력' '통찰력' '추진력' '설득력'이다. 이 중 한 가지는 확실히 가져야 한다. 통찰력이 있어야 대한건축사협회가 어디에 있는지, 미래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 협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결단력이 있어야 협회의 전략 목표와 추진과제를 놓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또 설득력이 있어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건축사를 하나의 힘으로 묶을 수 있다. 물론 추진력은 짧은 임기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다.

무엇보다도 협회의 지도자가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건축계를 비롯한 대중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존경은 국가를 위해, 건축을 위해, 협회를 위해, 회원을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과연 우리의 협회장은 누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나?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희생에 기반을 둔 업적으로 회원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결코 협회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도자의 크기가 협회의 크기이다. 대한건축사협회 마찬가지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첫날 밤을 맞이한 새색시처럼 어느 날 협회의 집행부나 위원장으로 발탁되거나 되어서야, 협회를 배우기 시작하여 회장의 비위나 맞추는 인턴집행부가 구성되어서는 곤란하다. 협회의 고문, 협회장, 이사, 위원장, 16개 시·도건축사회의 회장과 이사 및 위원장, 그리고 사무처 간부 등이 어떤 수준의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의 수준이 결정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협회장의 수준이다. 그러므로 협회장의 크기는 협회의 크기이다.

로마제국시대에는 왕과 귀족이 원형극장에서 싸우는 노예를 구경했다면, 이제는 왕들이 칼을 들고 싸우고, 대중이 이를 지켜보며 즐기는 세상이 된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는 회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정보들이 가득하다. 협회는 구시대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회원은 자기와 다른 '지도자'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협회장이 되려고 하는 자는 건축의 미래를 위해 어떤 협회장을 말하고 있는지 그런 비전을 보여야 한다. 꿈을 주지 못하는 협회장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협회장이 국민을 상대로 건축을 프레젠테이션하고 건축을 세일해야 한다.
건축이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시스템! 이것이 필요하다.
협회는 회원을 위해 만들어졌지 협회를 위해 회원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건축이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시스템! 이것이 필요하다.

건축사의 협회에 대한 소속감 약화, 집행부의 협회에 대한 의존도 약화는 협회의 역할에 의문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자. 협회는 필요 없는 것인가? 필요 없다면 무엇으로 대체될 것인가? 필요하다면 과거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협회는 협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가? 등이다.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회원의 권익보호에 있다. 협회를 통해 소속감을 가지고 비슷한 이들이 모여 기반을 확대해서 정부, 의회와 같은 곳에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느 협회나 정관이나 규정으로 대표되는 정체성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대한건축사협회에는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다. 협회장의 생각과 행동이 협회의 정체성이나 비전에 부합하는 지, 건축계와 회원의 이해관계를 떠안을 자격이 있는 인물인지가 중요한데도 오로지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만 관심은 곤란하다. 협회장에만 당선되면 이사, 위원장, 외부추천, 포상추천 등 협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협회에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회원도 없고 오로지 동업자적인 그들만의 모임으로 전락할 뿐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회원이 협회를 외면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회원을 위해 협회가 만들어졌지 협회를 위해 회원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협회는 평범한 회원을 위한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성공하려면 회원의 '생활공동체'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키워야 한다. 회원의 소속감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교류의 장을 넓혀야 한다. 공동관심사에 공동의 힘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무료법률상담, 건축학교, 동아리 등 마음만 먹으면 못할게 없다. 교회에 자기소득의 10%를 꼬박꼬박 현금으로 내는 사람들은 단순히 신앙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교회가 그만큼 뭔가를 자신에게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협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협회에 가면 법률자문도 받을 수 있고, 건축사업의 문제점도 자문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계약서를 구할 수도 있으며, 건축에 대한 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 여행에 관한 정보를 들을 수 있고, 자녀의 결혼이나 부모의 장례식 등에 관한 조언도 들을 수 있는 등의 역할을 협회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대한건축사협회가 재미를 주나, 소속감을 주나, 정보를 주나? 아니면 새로운 네트워크에 참여할 기회를 주나?

대한건축사협회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회원과 국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변화 즉, 희망의 불꽃을 발견하고 협회다운 모습으로 묵묵히 걸어가기로 희망한다. 건축주가 부동산중개사를 찾고 건설업자를 찾는 세상은 이미 건축은 죽은 사회이거나 무존재의 대상이다. 현재와 같이 건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서 대통령과 국민 등 누구나 이해가 되는 짧고 명확한 설명으로 건축으로 정의 할 수 있어야 한다.

협회장이 국민을 상대로 건축을 프레젠테이션하고 건축을 세일해야 한다.

건축이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시스템! 이것이 필요하다. ■